KOSDAQ SMALL-CAP RESEARCH

옵토닉스 493260 · 방산 광학부품

악재 우위

미사일·전차 같은 무기가 스스로 위치와 방향을 찾도록 돕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와 방산용 광학부품을 만드는 광주의 향토기업.

2026년 11월 20일 종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거래대금 순위 5위(104.0억). 11월 17일 상장 첫날 공모가(12,000원) 대비 '따블'(+140%대) 급등했으나, 사흘 만인 11월 20일 -27.1%로 급락하며 52주 최저가(9,190원) 근처까지 추락. 상장 직후 급등락 전형을 보이는 신규 상장주.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886억	9,270원	-27.12%	104억	22.97배	3.87배	157.00%	48.48%

쉬운 요약

2026년 11월 17일 코스닥에 갓 상장한 방산 광학부품 회사입니다. 미사일·전차 등이 GPS 없이도 자기 위치와 방향을 계산하게 해주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FOG)'가 주력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12,000원 대비 140%대까지 치솟으며 '따블'에 성공했지만, **단 사흘 만인 11월 20일 하루 -27.1% 급락**하며 52주 최저가(9,190원) 근처(종가 9,270원)로 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신규 상장주의 급등락입니다.

실적은 2025년 매출 256억·영업이익 36억으로 나쁘지 않고 ROE도 20%대로 높습니다. 다만 **PBR 3.87배로 자산 대비로는 비싸고, 2분기 이익(EPS)이 오히려 소폭 줄어** 성장 기대만큼 숫자가 따라오는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당좌비율 48%로 단기 자금 여력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투자 포인트

1. 2025년 매출 256억·영업이익 36억(영업이익률 14.06%)으로 전년 대비 이익이 2.5배 회복, K-방산 수요에 맞춰 FOG(광섬유 자이로스코프) 생산설비를 증설 중
2. ROE 20.38%(2025년)로 자본 효율이 높은 편이며, 유보율 2,145%로 축적된 자본 기반을 갖춤
3. 2026년 9~10월 증권신고서를 거쳐 11월 17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며 공모가 12,000원으로 자금을 조달, 설비 확충 재원을 확보

핵심 리스크

1. 상장 첫날(11/17) 공모가 12,000원 대비 +140% 대까지 치솟았다가 11/20 하루 -27.1% 급락, 종가 9,270원으로 52주 최저 9,190원 바로 위까지 밀려 상장 초기 수급 변동성이 극심
2. PBR 3.87배로 BPS 2,358원 대비 4배 가까운 가격 — 2분기 EPS가 65원→59원으로 오히려 줄어 성장 프리미엄의 근거가 약함
3. 당좌비율 48.48%·부채비율 157%로 단기 유동성이 빠듯하고, 신규 상장주 특성상 보호예수 해제·오버행(물량 출회) 리스크가 남아 있음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주가(원)와 거래량 — 최근 1년 일봉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18,170원	-49.0%	-7.7%	-41.3%
1개월 전	18,170원	-49.0%	-18.6%	-30.4%
3개월 전	18,170원	-49.0%	-	-
1년 전	18,170원	-49.0%	-27.6%	-21.4%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987,289주	104.0억	0.1x
5일 평균	8,434,122주	1451.6억	1.0x
20일 평균	8,434,122주	1451.6억	1.0x
60일 평균	8,434,122주	1451.6억	1.0x
1년 평균	8,434,122주	1451.6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20 기준.

종목 vs 코스닥 지수 (1년 전 = 100)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상장 3거래일 만의 롤러코스터입니다.** 11월 17일 상장 첫날 공모가 12,000원 대비 장중 +128~140%까지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는 +51%(연합뉴스 종합)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1월 20일 하루 -27.1%가 터지며 9,27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52주 최고 34,850원(11/17)이 상장 첫날 장중 고점이고, 52주 최저 9,190원(11/20)이 바로 어제·오늘 구간입니다. 현재 종가 9,270원은 그 최저가 대비 +0.9%에 불과합니다. **이 종목의 '1년'은 사실상 '3일'이며, 그 3일이 고점 대비 -73%의 폭락 구간**입니다.

② **거래량 수치는 상장 직후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일 거래량 98.7만 주, 거래대금 104억 원입니다. 5일·20일·60일·250일 평균이 모두 843만 주로 동일하게 찍히는 것은 거래 이력이 며칠뿐이어서 평균이 초기 급등일(거래 폭주)에 지배당한 결과입니다. 즉 당일/20일 배율 0.1배는 '거래가 식었다'기보다 **상장 첫날 폭발적 거래가 사흘 만에 급격히 줄어든** 신규주 특유의 패턴으로 봐야 합니다.

③ **외국인은 사실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이 현재 0.22%, 1개월 전·1년 전 모두 0.22%로 변화가 없습니다. 상장 초기 급등락을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과 단기 자금이 주도**했다는 뜻입니다. 기관·외국인 수급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등은 그만큼 되돌림도 빠릅니다.

④ **시장 전체도 약했지만, 이 종목의 낙폭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1개월 코스닥 지수가 -18.6%인 반면 옵토닉스는 -49%로 찍힙니다. 다만 이 -49%는 1주·1개월·3개월·1년 비교가가 모두 상장 직후 가격인 18,170원이어서 전 기간이 동일하게 나오는 신규주 특성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 약세가 배경이긴 하나, 핵심은 개별 신규주의 공모가 되돌림입니다. **결론: 지금 가격은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상장 첫날 과열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신규 상장주의 초기 변동성이 아직 진정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옵토닉스는 광주에 기반을 둔 방산 광학부품 전문기업입니다. 주력은 **광섬유 자이로스코프(FOG, Fiber Optic Gyroscope)** — 빛이 광섬유 코일을 도는 성질을 이용해 물체의 회전과 방향을 측정하는 센서로, 미사일·유도무기·전차·무인기 등이 GPS 없이도 스스로 위치와 자세를 계산하는 '관성항법'의 핵심 부품입니다. 2023년 매출 196억에서 2025년 256억으로 성장했고, K-방산 수출 확대에 맞춰 FOG 생산설비를 증설하기 위해 2026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광섬유 자이로스코프(FOG)	미사일·유도무기·전차·무인기가 외부 신호 없이 방향·위치를 계산하도록 돕는 관성항법용 광학 센서. 회사의 핵심 주력으로, 상장 자금으로 생산설비(FOG 증설)를 확충 중.
방산용 광학부품·센서	광학렌즈·광모듈 등 방산 체계에 들어가는 광학 부품. 정확한 매출 비중은 DART 증권신고서 'II. 사업의 내용' 및 상장 후 첫 사업보고서 확인 필요.
관성측정장치(IMU) 관련	FOG를 포함한 관성측정 모듈. 세부 구성과 매출 기여는 DART 사업의 내용 확인 필요.
매출 비중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증권신고서(2026.09.29) 및 상장 후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필요. 언론 보도상 FOG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목됨.

고객과 판매 구조

1차 고객은 **국내 방산 대기업(체계업체)과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 계열**로 추정됩니다. FOG는 미사일·전차·무인기 같은 완성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이므로, 옵토닉스는 이들 체계를 만드는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에 납품하는 하위 벤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고객 구성은 DART 증권신고서 '매출처' 및 '주요 계약' 주석 확인 필요). K-방산 수출 확대로 완성품 수요가 늘면 부품 발주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이며, 'FOG 수요 급증에 생산설비 확충'이라는 상장 사유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차로는 무인기·로봇 등 민수 응용도 추정되나 공시로 확인된 비중은 없습니다.

경쟁 구도

FOG·관성항법 분야에서는 국내에 **한화시스템, 퍼스텍, 그리고 LIG넥스원 내재화 물량** 등이 경쟁 또는 수요처를 겸하는 구도이며, 해외로는 Honeywell(美)·Safran(佛)·Northrop Grumman(美) 같은 글로벌 관성항법 강자들이 존재합니다. 옵토닉스의 상대적 강점은 FOG에 특화된 전문성과 광주 향토기업으로서의 레퍼런스이고, 약점은 대형 방산업체 대비 규모·자본력의 열위와 소수 체계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입니다. 글로벌 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이 국내 조달에서의 무기가 될 수 있으나, 고신뢰 방산 부품 시장은 인증과 실적(레퍼런스) 장벽이 높아 신규 체계 진입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경쟁 구도의 정밀한 파악은 DART 증권신고서의 '경쟁 상황' 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 밸류체인 관성항법 부품 — 광섬유에서 유도무기까지

광섬유 자이로스코프(FOG) 산업은 위로는 광섬유·광소자 같은 정밀 원재료에, 아래로는 미사일·전차·무인기를 만드는 방산 체계업체의 발주에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옵토닉스는 이 사슬의 **중간(FOG·관성 센서 제조)**에 위치해, 광학 부품을 가공·조립해 완성 무기체계에 공급합니다. 수요의 방아쇠는 소비가 아니라 '국방예산과 수출 계약'이며, K-방산 수출이 늘수록 하위 부품사인 옵토닉스의 수주가 따라 움직입니다.

① 원재료·광소자
광섬유, 광원(레이저 다이오드), 광검출기 등 정밀 광소자 공급사 (국내외 광부품 업체)

›

② 센서·모듈 제조
옵토닉스(FOG), 한화시스템, 퍼스텍 — 관성 센서·IMU 제조

›

③ 방산 체계업체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 미사일·전차·무인기 체계 통합

›

④ 최종 수요
방위사업청·군(국내 조달), K-방산 수출 (폴란드·중동 등), 무인기·로봇 민수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수요는 '소비'가 아니라 '국방예산과 수출 계약'이다.** FOG는 완성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므로, 체계업체의 수출·양산 계약이 있어야 발주가 난다. K-방산 수출 호황이 상장 스토리의 핵심 배경이지만, 실제 공급계약 공시로 이어져야 실적이 된다.
2. **고신뢰 방산 부품은 진입장벽이 높다.** 인증·실적(레퍼런스)·품질보증 요구가 커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렵다. 이는 옵토닉스에게 '지키는 해자'인 동시에, 해외 신규 체계로 확장할 때는 '넘어야 할 장벽'이다.
3. **소수 고객 의존이 구조적 리스크다.** 납품처가 소수의 방산 체계업체에 집중되면, 그 업체의 단가 협상력과 발주 타이밍이 매출을 좌우한다. 매출 다변화 여부를 증권신고서 '매출처' 항목에서 확인해야 한다.
4. **FOG 증설이 양날의 칼이다.** 수요 급증에 대응한 설비 확충은 성장의 전제지만, 발주가 기대만큼 안 나오면 고정비 부담으로 이익률이 눌린다. 2023년 영업이익률 19%가 2024년 5.8%로 꺾인 전력이 그 변동성을 보여준다.
5. **상장 자금의 사용처가 밸류를 가른다.** 공모로 조달한 자금이 FOG 증설과 운전자본에 효율적으로 투입돼 매출·이익으로 환원되는지가 PBR 3.87배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국방예산·K-방산 수출 계약	+	매우 높음	FOG 수요는 완성 무기체계의 양산·수출 계약에서 파생. 수출 호황이 직접적 매출 동인
방산 체계업체 발주 타이밍	+	높음	LIG넥스원·한화 등 체계업체의 발주 시점이 분기 매출을 좌우. 소수 고객 의존 구조
신규 상장 수급(보호예수·오버행)	−	매우 높음	상장 초기 급등락과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주가의 최대 변수. 11/17~20 급등락이 그 증거
FOG 증설 투자 성과	±	높음	수요 대응엔 긍정이나, 가동률이 못 따르면 고정비 부담. 2024년 이익률 급락 전력 참고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자료 · © 오픈팩트 · 4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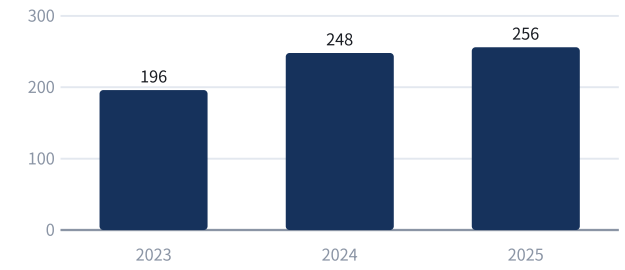
실적 분석 연간·분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96	37	53
2024	248	14	25
2025	256	3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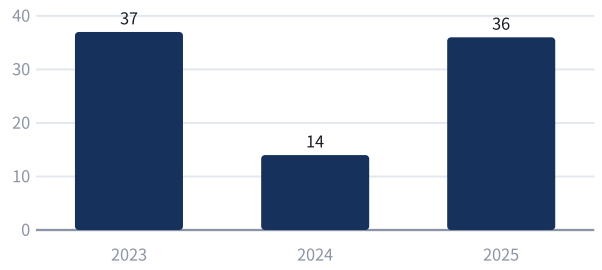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5.2Q	54	5	5
26.2Q	72	6	4
26.3Q	-	-	-
-	-	-	-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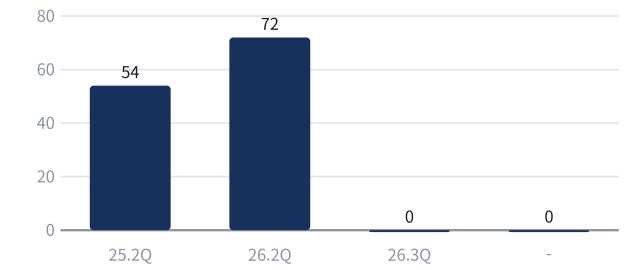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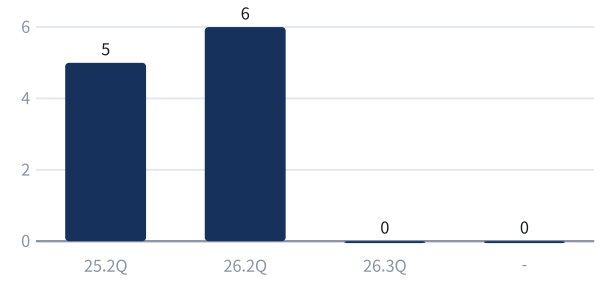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매출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196억(2023) → 248억(2024) → 256억(2025)으로 2년 연속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익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37억(2023) → 14억(2024) → 36억(2025)으로, 2024년에 한 번 크게 눌렸다가 2025년에 다시 회복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보면 19.02% → 5.77% → 14.06%입니다. **매출은 안정적인데 이익률의 변동성이 큰 구조**로, 원가·고정비 부담이나 특정 연도의 비용 요인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자본 효율은 높은 편입니다. ROE가 67.3%(2023) → 21.1%(2024) → 20.4%(2025)로, 최근 2년도 20%대를 유지합니다. 유보율 2,145%는 오래 쌓아온 자본이 있다는 뜻이고, BPS도 1,598원 → 2,203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EPS는 725원(2023) → 340원(2024) → 397원(2025)으로 순이익이 줄면서 2023년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분기 흐름을 보면 성장은 매출에, 숙제는 이익에 있습니다. 25.2Q 매출 54억·영업이익 5억에서 26.2Q 매출 72억·영업이익 6억으로 매출은 33% 늘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5억에서 4억으로 줄었고, EPS도 65원에서 59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커졌는데 주당 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순이익률이 8.76%에서 5.98%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외형에서 확인되지만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은 오히려 얇아진 셈이라, PBR 3.87배의 성장 프리미엄이 숫자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따져볼 대목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빠듯합니다. 부채비율은 163%(2023) → 202%(2024) → 152%(2025)로 한때 200%를 넘었다가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고, 당좌비율은 37.56%(2025년 말)·48.48%(2026년 6월)로 **100%를 크게 밑돕니다.** 당좌비율이 50% 안팎이라는 것은 당장 갚아야 할 빚 대비 즉시 동원 가능한 자산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으로, 단기 유동성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번 상장 공모로 들어온 자금이 이 지표를 얼마나 개선하는지가 상장 후 첫 분기보고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호재 주가에 힘이 되는 요인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2025년 이익 회복 — 영업이익 36억, ROE 20.4%

2024년 영업이익 14억(이익률 5.77%)으로 눌렸다가 2025년 36억(14.06%)으로 2.5배 넘게 회복했습니다. ROE도 20.38%로 자본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익률 변동성은 크지만 2025년에 수익성을 되찾은 점은 긍정적입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4.07

FOG 수요 급증 — K-방산 타고 생산설비 확충

미사일·무인기 등이 GPS 없이 방향을 찾는 핵심 부품(FOG) 수요가 K-방산 수출 확대로 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장 자금으로 FOG 생산설비를 증설해 수요에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호황이라는 산업 순풍 위에 있습니다.

출처 · 뉴스핌 2026.10.26 / 전자신문 2026.10.26

코스닥 상장으로 설비 투자 재원 확보

2026년 9~10월 증권신고서를 거쳐 11월 17일 코스닥에 상장, 공모가 12,000원으로 보도에 따르면 약 22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FOG 증설과 운전자본에 투입되면 단기 유동성(당좌비율 48%)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DART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11.10 / numbers 2026.09.29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따블' — 시장 관심 확인

11월 17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장중 128~140%대까지 급등하며 '따블'에 성공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51%로 마감해, 방산 광학이라는 테마에 대한 초기 투자 수요가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 연합뉴스·전자신문 2026.11.17

매출 2년 연속 성장 + 높은 유보율

매출이 196억(2023)→248억(2024)→256억(2025)으로 꾸준히 늘었고, 유보율 2,145%로 축적된 자본 기반이 탄탄합니다. BPS도 1,598원에서 2,203원으로 증가하며 자기자본이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4.07

악재 반드시 감안할 위험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상장 3일 만에 -27.1% 급락 — 극심한 초기 변동성

11월 17일 상장 첫날 '따블' 급등 후, 11월 20일 하루 -27.1%가 터지며 종가 9,270원으로 52주 최저 9,190원 바로 위(+0.9%)까지 밀렸습니다. 상장 후 비교가가 모두 18,170원이라 1주·1개월·3개월·1년 수익률이 전부 -49%로 찍힙니다. 신규 상장주의 공모가 되돌림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PBR 3.87배 — 자산 대비 비싼 가격

BPS 2,358원 대비 주가 9,270원으로 PBR이 3.87배입니다. 자산가치의 약 4배에 거래되고 있어, 전형적 '저평가'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려면 이익이 빠르게 늘어야 하는데, 2분기 EPS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지표 2026.11.20 / 종가 기준

2분기 순이익·EPS 감소 — 매출 늘었는데 이익은 줄어

26.2Q 매출은 72억으로 전년 동기 54억 대비 33% 늘었지만, 순이익은 5억→4억, EPS는 65원→59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순이익률이 8.76%에서 5.98%로 떨어졌습니다. 성장 스토리와 달리 주당 이익이 희석된 점은 경계 요인입니다.

출처 · DART 분기재무 2026 / 수집 재무표

당좌비율 48% — 단기 유동성 빠듯

당좌비율이 2025년 말 37.56%, 2026년 6월 48.48%로 100%를 크게 밑돕니다. 당장 갚아야 할 빚 대비 즉시 동원 가능한 자산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부채비율도 152~157%로 낮지 않아 재무 여력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4.07 / 분기재무 2026

이익률 변동성이 크다 — 2024년 영업이익률 5.8%로 급락 전력

영업이익률이 19.02%(2023)→5.77%(2024)→14.06%(2025)로 한 해 만에 3분의 1 토막 났다가 다시 회복한 이력이 있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인데 이익률이 크게 흔들린다는 것은, 특정 비용·원가 요인에 수익성이 취약하다는 신호입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4.07

신규 상장주 오버행 — 보호예수 해제 물량 리스크

상장한 지 며칠 안 된 종목으로, 공모 전 주주(기관·우리사주·대주주 등)의 보호예수가 순차적으로 풀리면 물량 출회(오버행)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 일정과 물량은 증권신고서 '유통가능주식 수'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DART 증권신고서 2026.09.29 / 발행조건확정 2026.10.29

외국인·기관 수급 부재 — 개인 주도 급등락

외국인 소진율이 0.22%로 1개월 전·1년 전과 동일하게 사실상 유입이 없습니다. 상장 초기 급등락을 외국인·기관이 아닌 개인과 단기 자금이 주도했다는 뜻으로, 수급 기반이 약해 되돌림이 빠를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외국인소진율 2026.11

소수 방산 고객 의존 가능성 — 매출처 집중 리스크

FOG는 완성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 소수의 방산 체계업체에 매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정). 특정 고객의 발주 타이밍과 단가 협상력이 실적을 좌우하는 구조이며, 매출처 구성은 증권신고서 '매출처' 항목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DART 증권신고서 2026.09.29

공시 타임라인 최근 9개월 DART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11.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옵토닉스
2026.10.29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옵토닉스
2026.10.21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옵토닉스
2026.09.2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옵토닉스
2026.04.07	감사보고서 (2025.12)	도원회계법인
2026.04.07	연결감사보고서 (2025.12)	도원회계법인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공시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상장을 준비했고, 상장했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로 요약됩니다. 2026년 4월 7일 감사보고서(2025년 실적 확정)를 낸 뒤, 9월 29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제출하며 코스닥 상장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0월 21일 기재정정, 10월 29일 발행조건 확정(공모가 12,000원)을 거쳐 11월 10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로 공모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지금 시점의 핵심 공시는 전부 '상장 그 자체'에 관한 것**이며, 상장 후 사업 실적을 담은 분기·사업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장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유통가능주식수와 보호예수 해제 일정, 그리고 FOG 증설의 투자 규모가 담긴 증권신고서 본문을 정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목표주가 없음 · 방향과 조건만

강세 시나리오

상장 자금이 FOG 증설에 투입돼 K-방산 수출 수요를 받아내고, 방산 체계업체향 공급계약 공시가 이어지며 매출이 300억대로 레벨업. 이익률도 2025년 수준(14%)을 유지하면서 순이익이 EPS 증가로 연결. 이 경우 PBR 3.87배의 성장 프리미엄이 숫자로 정당화된다. **조건: 상장 후 첫 분기 실적과 공급계약 공시로 확인 필요.**

기본 시나리오

상장 초기 급등락이 진정되며 주가는 공모가(12,000원) 아래~10,000원 안팎에서 수급을 소화. 실적은 매출 성장은 이어지나 이익률 변동성이 커 순이익은 들쭉날쭉. K-방산 테마 강도와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주가 방향을 좌우한다. **신규 상장주의 가장 흔한 경로.**

약세 시나리오

2분기처럼 매출은 늘어도 순이익률이 계속 눌리고, 보호예수 해제로 오버행 물량이 쏟아지며 수급이 무너진다. 당좌비율 48%의 유동성 부담이 부각되고, 방산 테마가 식으면 상장 첫날 급등분을 전부 반납. 52주 최저(9,190원) 하향 이탈 가능성. **초기 과열 신규주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상장 후 첫 분기보고서(2026.3Q 또는 4Q) — 매출 성장이 순이익·EPS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DART, 2027년 초)
2. 증권신고서의 '유통가능주식 수'와 보호예수 해제 일정 — 오버행 물량 출회 시점 (DART 증권신고서 2026.09.29)
3. 상장 공모자금 사용 내역 — FOG 증설·운전자본 투입과 당좌비율 100% 회복 여부 (상장 후 분기보고서)
4. 방산 체계업체향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DART, 수시)
5. 이익률 변동성 — 2024년처럼 영업이익률이 다시 급락하지 않는지 (분기 실적)
6. 외국인·기관 수급 유입 전환 여부 — 개인 주도에서 벗어나는지 (네이버 증권 외국인소진율, 주간)

오픈팩트의 결론

옵토닉스는 K-방산 수출이라는 산업 순풍 위에 선 **방산 광학부품 신규 상장주**입니다. 2025년 이익 회복(영업이익 36억, ROE 20%)과 FOG 수요 성장이라는 스토리는 분명하지만, **상장한 지 며칠밖에 안 돼 실적보다 수급이 주가를 정하는 구간**입니다. 11월 17일 '따블' 급등과 11월 20일 -27% 급락이 사흘 안에 벌어진 것이 그 변동성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PBR 3.87배의 성장 프리미엄은 숫자(2분기 EPS는 오히려 감소)로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당좌비율 48%의 유동성·보호예수 오버행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방산 테마'에 올라탄 가격이지, 상장 후 실적으로 검증된 가격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갚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자료 · © 오픈팩트 · 9 / 10

본 자료는 공개 정보(DART 전자공시, 공개 재무데이터, 언론보도)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재무 수치는 DART 공시 기반 공개 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원문 재무제표와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주·계약 금액 일부는 언론 보도에 근거해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세·지표는 표기된 기준일 종가 기준 이며 이후 변동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